

한라시론



민 무속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피해자 보호를 넘어 피해자 권리보장의 책임 묻기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의 여성폭력추방주간이 끝났다. 올해 가장 큰 이슈는 시행 일년을 맞은 스토킹처벌법의 효과와 문제들이었다. 상대 여성뿐 아니라 그 어머니까지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22년간 잠자고 있던 스토킹처벌법이 단 20일 만에 국회를 넘은 것이 작년 10월이었다. 그러나 서둘러 먹는 밥이 체한다고 스토킹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월~10월) 112신고는 총 6971건이었으나 법 시행 후 (2021년 10월~2022년 9월) 2만9156건으로 증가했다. 1일 평균 신고건수가 23.8건에서 84.5건으로 약 3.6배 증가한 것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며 견뎌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80.7%가 여성으로 나타나 성별에 기반한 여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보인다.

제주도의 경우 동 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률이 전국 3위를 차지하는 등 매일 평균 1.3건의 스토킹범죄가 발생했다(제주경찰청).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여성긴급전화1366 및 도내 상담시설 12개소를 통한 스토킹 상담은 127건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한 해 상담건수(132건)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동 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이 단순 구애가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이 높아졌고 신고도 증가했지만 신당역 살인사건같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함으로써 동법의 문제점이 여실히 노출됐다.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의 미비로 법원 신고 하루 전 피해자의 동선이 무방비상태로 노출됐고 이어 무참히 살해당한 것이다. 또한 반의사 불벌죄 규정으로 인해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고소 취하를 강요하거나 2차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현재 피해자 보호나 처벌강화 등 여러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소극적 보호의 관점을 뛰어넘어 그들의 권리보장의 관점을 정책 전반에 확고히 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전학을 가야 하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쉼터로 도망가야 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직장을 관뉘야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보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표피적인 탓이 크다. 수사 및 기소 등 사건처리 전 과정에 걸쳐 가해자에 대한 동정과 감정이입이 피해자의 기본권과 생존권에 대한 인식을 압도한 결과 피해자들은 국가를 믿지 못하고 개인적 대응으로 맞서다가 포기하거나 비극적 사태를 맞곤 한다.

한국이 세계 10위안에 드는 강국이라고 하지만 안전에 대한 권리보장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인식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사설

강정주민 연말 사면·복권 '통 큰' 결정을

강정주민 사면·복권 문제가 연 말 연시 지역사회 화두로 다시 등장했다. 200명 넘는 강정주민이 여전히 범법자로 남겨진 채 정부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당사자는 물론 상당수 도민들이 특별사면의 간절함에 지켜 갈 정도다. 도가 그간 수십 차례 건의를 해왔고, 전·현직 대통령도 적극 검토를 밝혀 온 만큼 정부 차원 통 큰 결정을 계속 미룰 순 없다.

도는 최근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반대하다 사법처리된 강정주민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 정부부처, 여·야당 등에 전달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건의문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국민통합이 강정서 시작되도록 연말연시 강정주민 특별사면·복권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고 했다. 새 정부들이 처음 단행된 77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때도 대정부 건의문을 냈지만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강정주민 사면·복권 문제는 도에서 그간 40회에 걸쳐 사회통합과 주민 명예회복 차원에서 건의했지만 불과 4차례 4명만 이뤄졌고, 나머지 212명에 대해선 '묵묵부답'인 상태다.

정부는 더 이상 강정주민 사면·복권 문제에 우유부단하거나 '장기 과제'로 여겨선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월 강정방문시 "통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 나가도록 중앙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던 점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 정부부처, 여·야당 등에 전달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건의문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국민통합이 강정서 시작되도록 연말연시 강정주민 특별사면·복권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고 했다. 새 정부들이 처음 단행된 77주년 광복절

2조대 미불용지 보상, 근본대책 세워야

제주도내 도로에 편입된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보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미불용지 보상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미불용지 보상비는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제주도의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도청에서 도로 편입 미불용지 전담팀 회의를 열어 보상금 현실화, 재정부담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16년 10월 도내 미불용지 전수조사 결과 9만1147필지(1151만8000㎡)로 나타났다. 보상금은 공시지가 기준 1조2700억원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최근 땅값 상승으로 실제 보상비는 2조5000억원이 웃돌 것으

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24년까지 3년동안 929억원을 확보해 소송패소 토지와 보상금 청구 토지에 대해 보상비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문제는 미불용지 보상비가 시간이 지날수록 급증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매년 땅값이 뛰면서 미불용지 보상비가 불과 5년만에 갑절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미불용지 보상금도 그때그때 지급하기 일쑤다. 소송패소 토지와 보상이 청구된 토지에 대해 우선 보상을 진행하는 등 뺄셈 식으로 대처하고 있어서다. 그렇다고 토지주가 보상을 신청해 용지 전수조사 결과 9만1147필지(1151만8000㎡)로 나타났다. 보상금은 공시지가 기준 1조2700억원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최근 땅값 상승으로 실제 보상비는 2조5000억원이 웃돌 것으

편집국 25시

선진국을 자처하는 한국의 현실



김 채현 편집부 기자 hakch@ihalla.com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해 7월 한국을 선진국 그룹에 편입시켰다. UNCTAD가 발표한대로 한국은 진정 선진국일까.

선진국에 대한 기준에는 경제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국민 삶의 질, 글로벌 책임 정도를 모두 아울러야 한다.

현재 한국은 2021년 기준 GDP 세계 10위, 1인당 GNI 24위, 무역 규모 8위를 기록하며 외형적으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아직 그에 걸맞은 내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나라 노동자의 남녀 성별 임금 격차가 주요 39개국 가운데 가장 크다. OECD의 조사 결과를 들 수 있다. 한국은 1996년 가입 이래 계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가 정의한 '성별 임금 격차'는 작년 연봉을 기준으로 남녀 노동자를 줄 세웠을 때 각각 가운데 있는 남성과 여성의 연봉을 비교한 것이다. 한국은 이 차이가 31.1%로 조사 대상 국가 중 유일 30%를 넘겼다.

이러한 남녀임금 격차는 성평등 문제를 넘어 비혼·비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과도 많은 연관을 갖는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드러냈지만, 한때로 그쳤다. 정부는 성별 근로 공시제 도입 등 사후 대책 위주의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것도 가꾸 진정한 선진국이 되어야 할 때다.

뉴스-in

"관광기금 여유자금 효율적 관리 안돼"

도, "분산투자 실시" 피력

성산읍 체납액 정리 총력

○...고금리 상황에서 관광업계와 도민들의 가계운용자금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기금 여유자금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와 실제로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기반별 여유자금을 관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기금 여유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관리를 주문.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고금리 상품의 정기예금과 분산투자를 실시하겠다"며 관리 의지를 피력.

○...서귀포시 성산읍이 10~12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에 따라 남은 한달간 집중적인 지방세 징수 확대를 건진 재정 확보와 공평과세를 구현하겠다고 선언.

7일 성산읍에 따르면 지역 내 체납액은 지난 2일 기준 9억 9800만원이며 세부별로는 취득세 5%, 재산세 58%, 자동차세 20%,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17% 등으로 구성.

현동식 성산읍장은 "고액 또는 상습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현장 방문해 독려하고, 소액에 대해서도 문자메시지 전송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내에서 주행할 수 없도록 변호관 영치를 단행하겠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전주이씨 재수(향년 96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 올립니다. 2022년 12월 8일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백도라지 분말 관상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국제보정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진주강씨 춘희(향년 7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 올립니다. 2022년 12월 8일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정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